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노정남
제목	내 생명 끝날까지 평생 학습의 매력에 빠져 살고 싶다		

내 생명 끝날까지 평생학습의 매력에 빠져 살고 싶다

내가 요즘 서 있는 곳은 남부 아프리카에 속한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근교 5만여평의 바람 많은 언덕이다. 누구나 이 곳에 서게 되면 동일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 해발 1300미터의 넓은 고원에 위치한 국가에 걸맞게 유달리 하늘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높은 산이 없어 더욱 넓게 느껴지는 맑고 푸른 하늘에 뭉개 구름이 넓게 드리워지는 날에는 머리 위로 손을 펼치면 흰 구름이 금방이라도 달콤한 솜사탕처럼 두 손 주위에 가득 넘칠 것 같다. 또한 이 광활한 대지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잠비아인들의 검은 피부를 처음 대할 때는 다소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이들만큼 순수한 사람들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는 착각도 곧잘 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의 특별한 삶의 시작

나는 2017년 이후 잠비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로 지내고 있다. 아프리카에 산 지는 만 4년이 지났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을 거쳐 잠비아는 두번째 거주국이다. 내 인생 속에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기대하거나 꿈꿔 본 적은 없었다. 내가 한국에서 살 때 아프리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연관이 있었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흔한 곳,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곳, 사자와 같이 사나운 야생 짐승이 많고 미개한 부족들이 흔히 살고 있는 곳. 이런 정도의 이해력이 나의 관념의 한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NGO를 통해 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나는 곧 승낙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의 특별한 삶은 시작되었다.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운명은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음이 틀림없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성공 비결의 특별한 마인드를 길러주고, 강인한 정신들을 키워준다면, 지금은 후진국이더라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네. 내가 그 곳 정부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기술과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복합센터를 짓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해 재능 기부로 헌신하는 건 어때? 이 일이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큰 일이네.”

체계적 그리고 꾸준한 영어 공부를 위한 도전, 한양사이버대학교 편입

나는 세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다. 젊을 때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한 때는 이 분야에서 일을 했었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하고 특별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일을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강사의 길을 걷고 있다.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한 나에게 아프리카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 이전의 전공까지 되살려 이 곳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센터를 짓기 때문이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2년 전, 나는 이 곳 잠비아로 옮겨왔다. 베냉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를 익혀가면서 활동하는 데에는 그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베냉에 비해 잠비아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잠비아에 오기 전 나는 다시 언어로서 영어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앞섰다. 프랑스어보다는 영어가 익숙하고, 영어를 좋아하긴 했지만 영어로 전문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었다.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 나가야 하지?’

마음에서 느끼는 부담은 생각보다 컸다.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보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컨트롤하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고민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사이버대학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혼자 영어를 마스터 해 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욕만큼 더욱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후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내 마음을 서서히 일으켰다. 여러 사이버 대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사회적인 명성과 신뢰도 부분이 가장 큰 한양사이버대학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마침 영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호감을 가지고 지원 및 입학할 하게 되었고, 나의 영어공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에게 학사 학위 그 자체는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이미 건축 전공의 공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하고 싶은 배움의 갈망 그 자체로 순수하게 영어학도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영어 마스터를 향한 2년의 쉽지 않았던 발걸음

주경야독! 어릴 때 생각했던 이 네 글자의 의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대변하는 사자성어였다. 그 사자성어가 내 삶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식어가 될 줄은 몰랐다. 낮 시간에 나는 주로 이 곳 정부로부터 무상임대가 된 계획부지에 어떻게 청소년 복합센터를 건축할 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도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며 보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식사와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한양 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에 편입한 후 이수해 가야 할 전공교양과 필수과목이 2년간 소화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년간 수강과목의 95퍼센트가 영어였다. 영어 능력 향상을 향한 집중 학습의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 2년간 어려움도 참 많았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곳의 인터넷 사정이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외국 업체가 여러 곳 있긴 하지만 내가 머무는 지역은 그 속도가 너무 느렸다. 어떤 때는 고화질과 일반화질의 동영상 강의는 커녕 음성으로만 강의를 들어야 하는 날도 허다했다. 가급적 동영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날에 인터넷 속도가 더욱 느린 경우에는 수강 시간이 두, 세 배 이상 걸릴 때가 많았다. 매 학기 평균적으로 18학점

이상 수강해야 졸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수강을 미루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학습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게으르지 않고 일관되게 지냈다.

위기는 곧 기회

주경야독에는 수 많은 장애물과 부담감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려움들은 내게 기회를 사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말이다. 부담이라는 위기는 나를 케어하고 꾸준한 학습을 위해 컨트롤 해주는 기회였던 것이다. 약간은 늦은 나이, 두뇌의 회전 속도가 젊은 청년같이 않을 나이이지만, 그런 난관들은 하루하루의 강의 시간에 겸비한 마음으로 충실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 학습의 시간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새로운 영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배워가며 더 넓은 언어의 세계를 접하는 시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늦은 밤 강의 시간에 배웠던 새로운 영어들을 그 다음 날 사용하고 싶은 학습의 욕구에 이끌려 2년간의 시간이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기도 했었다.

‘내일은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내가 서 있는 공사 현장에서 만나는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내가 배운 영어를 연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연습 대상이었다. 그렇게 보내는 2년은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성과 말고도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영어실력은 한양 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보조를 맞추며 함께 자라 왔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4.13의 평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입 후 학사 학위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건축공학사 학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양 사이버 대학교 편입은 영어공부를 위한 선택이 되었음이 지금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도록 해 준다. 하지만 편입 이후 이 년간 거의 매일 밤을 영어와 연애하듯 지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욕심도 저절로 생겼다. 영어를 마스터해가는 과정속에서 마음을 기울여 공부한만큼, 학점도 잘 받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인터넷 사정으로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은 접속불가능으로 아예 시험 자체를 못 보게 되었는데, 시험 시간 내내 학교에 전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못 보게 되었다. 그런 경험들로 항상 유쾌할 수는 없었다. 학위보다 학습자체에 대한 취지와 동기, 젊을 때 건축을 전공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가 시험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거나 아예 못 보게 되어서 다음 시험의 70 퍼센트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학기를 마친 후 최종 평점은 4.13 였다. 평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나 자신에게 평점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다.

한양 사이버 대학원에 진학하다

한양 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한 후 나는 공학사에 이어 문학사가 되었다. 값진 학사 학위를 두 개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나는 한양 사이버 대학원 디자인기획 전공에 입학했다.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 또한 학위 자체보다도 학문으로서 디자인 자체에 대한 관심과, 2년간 다시 새로운 분야를 마스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자신감은 한양 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부터 얻게 된 학위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내면의 이유와 핑계들을 넘어서서 한양 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를 보람되게 마친 경험은 본인 스스로에게 새로운 학문과 배움에 대해 다시 도전해 보라고 따뜻한 미소와 입김으로 끊임없이 속삭인다.

평생교육의 은근한 매력

지금부터 2년이 지나면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가진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한양 사이버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사 과정의 더 많은 분야의 학문들에 다시 도전하며 새로운 세계를 배워보고자 한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나에게 단순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뿐 아니라 사이버 대학교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더 많은 지식의 분야를 접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지난 2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흐뭇하다. 영어 실력 또한 2년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자랐다. 물론 여전히 영어실력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내 삶에 새로운 동기 부여와 함께 평생교육의 은근한 매력에 깊이 빠지게 해 준 한양 사이버 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모전을 주최해 준 조선일보사에도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다.